

할렐루야! 평강의 주님이 케냐선교 동역자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여름 한국 방문은, 항상 케냐선교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분들의 마음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한 분들께 죄송함과 아쉬움도 크지만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쌓고, 그동안 먹고 싶었던 맛난 한국의 음식을 먹으며 아이들 나름의 재충전과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더욱이 아내선교사의 종양제거기술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동역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은 심없이 변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날로 새롭고 변함이 없어 오늘도 그 은혜로만 살아감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11월 안경열, 이혜란 (여준, 여성, 여림) 선교사 드림

"가난한 자를 붙잡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몇 년 전과 다르게 이상기후로 인해 케냐는 지금 시기상 우기인데도 비가 오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아 땅은 메마르고 풀이 없다. 삼부루 사람들은 온종일 양과 염소를 데리고 이리저리 풀을 찾아다니지만, 점점 가축의 양상한 뼈만 드러나고 오히려 가축들이 죽어 간다.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어 가정의 가장들은 풀을 찾아 먼~ 곳으로 이사를 했다. 다시 비가 오고 풀이 나면 돌아오리라 기약한 지도 벌써 오래다. 집에 남아 있는 아내와 자녀들 역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비가 오더라도 충분히 오지 않는 사막기후의 지역이기에 그나마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더욱 나빠진 것이다. 그래서 롱게르데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때부터 오병이어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식량을 나누고 있다.

이번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식량을 나눈다.

(11월 21일) 케냐는 추수감사절 절기가 없지만

일년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지금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식량을 나누고자 한다. 식량나눔을 할 때마다 예상인원보다 넉넉히 준비하지만 늘 모자라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족함을

케냐선교동역자분들과 나누길 원하며 함께 동참해 주실 귀한 손길을 기도하며 기다린다.



다음 식량나눔은 성탄절입니다!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 오병이어는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아니지만, 그 작은 헌신이 주님의 손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고, 사르밧 과부의 가루 한 움큼과 적은 기름이 엘리야를 통해 약속하신대로 마르지 않음같이, 우리의 삶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경험되기를 기대합니다!

후원안내 농협 453035-56-136754 안경열(표기 000식량)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



드디어 롱게르데드 교회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부하는 것을 중단해야만 했던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꿈 장학회(Ndoto scholarship)가 출범하였다. 꿈 장학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신 꿈을 이루게 하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목적과 비전”으로 조직되었다.

현재 후원자와 결연되어진 10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장학회의 비전을 나누고 새학기의 학비와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였다. 내년 초에는 이 장학생 친구들과 롱게르데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꿈도서관”의 건축이 시작될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되어 그 마음에 순종한 손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이들을 사랑하심이 더욱 깊이 새겨지고 확증되었다.

황량한 삼부루 땅에서 살아가는 이곳의 젊은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 누구는 목회자, 누구는 의사, 누구는 선생님... 그 꿈이 가난 때문에 포기되지 않고 롱게르데드 꿈 장학회를 통해 요셉과 같은 위대한 꿈이, 다니엘과 같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케냐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장학후원안내 -
 장학생들과 1:1 결연을 원하시는 분(교회)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카톡ID : akr1hr73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역대상 28장 20절)



요즘 매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처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장년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른들이 앉을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좁은 예배실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막거나 예배실에 있는 아이를 밖으로 내 보내는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발생된다.

처음 예배당에서는 어린이들도 함께 장년부 예배를 드려도 좁지 않았는데 이제는 교인이 점점 늘어나면서 증축한 예배당도 좁아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여호와아레로 건축비가 마련되어지고, 건축자재들이 하나, 둘 준비되는 것을 보면서 설레기도 하나 걱정이 앞선다.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심지어 타국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을 건축하려 하다니,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용감해도 너~~무 무식할 정도로 용감한 것이 아닌가 싶다.

기도밖에 답이 없다. 케냐선교를 위해 함께하시는 동역자님들! 성전 건축을 위해 그리고 무식한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롭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곳에 세워질 때 더 많은 사람이 올 것을 확신한다. 그들이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 오든지, 자녀 장학금을 위해서든, 과자와 사탕을 먹기 위해서든, 어떤 도움과 이익을 위해서 교회로 오든지 간에 그들의 첫 발걸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왔다가도, 다시 돌아갈 때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돌아가기를 기도한다. 또한 눈에 보이는 성전뿐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도 더욱 견고하고 깨끗하게 지어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기공식때의 첫 삽 뜨는 장면]

[기공식에 참석해주신 시찰목사님들과 미국 선교사님부부]



롱게르데드교회 건축현장

성전건축이 시작되었다. 여호와 이레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건축하는 일꾼들과 롱게르데드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여러 도움의 손길이 하나되어 주의 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
건축이 마쳐지기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케냐 선교 동역자 여러분들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